하나님이 동쪽으로 간 이유

(에스겔 11:1~25)

22. 그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23.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24.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25.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동쪽으로 간 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이 동쪽으로 간 이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라는 영화의 제목이 떠오르시리라 생각합니다. 개봉 당시에 각종 영화제를 휩쓸며 대단한 반응을 일으켰던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제목대로 달마 대사가 왜 동쪽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밝혀진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이 말은 불가에서 참선을 할 때에 스승이 제자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제시하는 화두의 하나로써 사용된다고 합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사람마다 무궁무진한 대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 동쪽으로 나가는 환상을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예루살렘 성 자체를 떠나는데 동쪽으로 떠나십니다. 이렇듯 본문에서는 동쪽이라는 방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동쪽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크기로만 보자면 예루살렘 성전은 티끌에 티끌만도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시거나 나가시거나 할 수 있습니까? 또한 우주의 창조주로써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티끌 같은 작은 지구 안에서 동서남북의 방향을 따지는 것도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물질세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같은 하나의 건물이나 동서남북의 방위 따위에 제한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에서 굳이 동쪽이 강조된 것은 분명하고 중요한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가득했다는 것의 의

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민들의 삶은 지평선처럼 하늘과 땅이 맞닿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성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물질세계의 밖에 있기 때문에 우주도 담지 못하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육체에 속한 우리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상상할 수도 없고 또 그 하나님을 나 같은 작은 인간의 마음 안에 모신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의 상징물로써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에스겔의 환상에서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고 영화로운 광채가 가득하게 되는 것은 곧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셔 들이는 상황을 형상화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구 안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따라서 마음은 지구의 어떤 가치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기에 참 기쁨과 만족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크기로 지음 받은 인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에만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성전을 통해 형상화되었습니다.
또한 성전에는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이스라엘 여자들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뜰은 우리의 삶에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족이나 직장동료들 같은 영역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은 그보다는 조금 소원하지만 여전히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와 같은 영역들입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의 뜰은 다시 그보다 조금 더 소원한 학연이나 지연 등으로 맺어진 영역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뜰은 그보다 더 소원한 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관계를 갖게 되는 지역 내 사람들 정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의 뜰은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퀴에 의해 굴러가는 현장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선민과 함께하시려고 의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선민을 떠나 동쪽으로 가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서 빠져나가시는 이유와 방향이 동쪽으로 상징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빠져나가는 곳이 왜 동쪽으로 상징되었는가를 알면 하나님이 빠져나가시는 일이 없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을 모셔 들인 적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일지라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마음에 들어오시려는 하나님의 희망과 의도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희망과 의도가 완전히 철수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상징됩니다.
동쪽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빠져나가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신 이유는 선민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쳐서 예언하라’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선민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상태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선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말을 인용하시며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길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라는 부분은 일찍이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향한 예언에 백성들의 태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6절을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바벨론에 마음 붙이고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포로로 잡혀간 선민들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조롱하고 반박했습니다.

또 ‘성읍이 가마가 되고 고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 유다에 남아있던 선민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조롱하고 반박하던 말입니다. 가축을 잡고 나면 먹을 만한 고기들은 가마에 넣고 삶고 쓸모없는 것은 버립니다. 당시에 이미 바벨론의 침공으로 죽고 두 차례에 걸친 포로이송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다만 아직 유다는 완전히 망하기 전으로써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건재했습니다. 이때에 칼에 죽지도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선민들은 자신들을 가마 속에 들어가는 먹을 만한 고기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칼에 죽거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에 대해 반박하시며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핵심은 포로로 잡혀갔든 유다에 남아있든 선민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나라가 회복됨과 더불어 자신들의 삶의 형편이 개선되고 안정되기만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땅에 밀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선민들이 포로로 잡혀갔든 예루살렘에 남아있든 그 마음이 하늘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처음부터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장소나 형편을 불문하고 어디서든 천국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선민들은 이 천국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망하기 전까지 참담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 이유도 따지고 보면 선민들이 마음에 땅을 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번영하고 형통하면서 잘 살기만을 희망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마음에 담은 땅을 뒤흔드셨습니다. 깨우치고 돌이켜서 에스겔을 통해 환상으로 보여주신 천국을 가지

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들은 여전히 땅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땅에 대한 희망이 선민들의 삶에서 함께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을 떠나가시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다시 말해 선민이 가진 땅에 대한 희망이 참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신 여호와의 영광이 빠져나가는 출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어로 EXIT는 비상구 혹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출구를 의미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가실 수밖에 없는 출구가 바로 이 땅에 밀착되어 있는 나의 희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세상에 희망처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정리해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지음 받은 인간의 마음을 형상화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을 떠나시는 환상은 하나님이 선민들과 함께 하시고자 했던 희망과 의도를 포기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떠나시는 이유는 선민들이 마음에서 땅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대한 희망이 바로 하나님을 내 삶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출구가 굳이 동쪽으로 지칭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보았던 8장 16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이 묘사되었습니다. 성소가 있고 번제단이 있는데 그 사이에 25명의 제사장들이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5명의 백성들의 고관이 등장합니다. 주석가들은 이 25명의 고관이 누구이며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5라는 숫자 자체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가 제사장이나 고관이나 백성들에게 모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25는 24에 1을 더한 숫자입니다. 24는 최상급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3은 삼위일체를 지칭하는 하늘의 완전수이고 4는 동서남북을 지칭하는 땅의 완전수입니다. 이 둘이 합쳐진 7이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땅과 하늘이 만나는 지평선입니다. 이 7이 두 번 더해진 14도 완전수가 되고 3과 4가 곱해진 12도 완전수가 됩니다. 이 완전수인 12가 두 번 더해진 24는 최상급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25는 여기에 1이 더해진 숫자입니다. 이것은 완전함이 깨어짐을 의미합니다.

최상급의 완전함이 깨어진다는 것은 가장 큰 참담함을 겪게 됨을 의미합니다. 2층 건물이 무너지는 것과 100층 빌딩이 무너지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무너진다는 현상은 같지만 파급력이 다릅니다. 최상급의 완전수인 24가 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참담하기 그지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앞서 8장에서 보았던 우상숭배 중에서도 태양숭배의 모습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숭배를 최상급의 완전함을 깨뜨리는 최악의 참담함으로 보신 이유는 태양숭배의 핵심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침 일찍 바닷가를 산책할 때에 이글거리는 빨간 태양이 어둠을 가르고 바다에서 떠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며 밝은 미래를 희망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어두운 미래를 꿈꾸기는 불가능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새해만 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처지와 형편이 다르고 희망하는 것도 다르지만 떠오르는 새해 첫 태양은 그 모든 다양한 소원을 받아줍니다. 이것이 태양숭배의 무서운 점입니다.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대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태양숭배는 풍요와 다산은 물론이요 개개인의 모든 희망과 소원까지도 들어주는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고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사전에서조차 태양을 찾아보면 부수적인 뜻으로써 “희망이 되는 존재의 상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을 상징하는 어둠을 깨뜨리고 솟아오르는 태양은 언제나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25라는 숫자를 통해 희망을 품고 태양을 바라보게 된 선민의 상태를 최악의 참담함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최상급의 완전함이 박살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희망은 이 지구 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을 상징하는 태양은 지구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강릉 바닷가에서 떠오른 태양은 한반도를 지나 중국 베이징에서도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어느 대륙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동쪽 산으로 떠나가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희망을 상징하는 태양이 동쪽에서 뜨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희망, 가족들 각 사람에게 해당하는 모든 상황의 형통의 희망, 재정적 문제에 대한 희망, 승진에 대한 희망, 합격에 대한 희망 등 희망의 종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히려 기도 내용의 대부분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들이 차지합니다.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희망을 갖게 되면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태양처럼 희망이 불안과 걱정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땅에서 희망을 가지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멀어지십니다. 우리의 땅에 대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떠나시는 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태양 같이 떠오르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을 출구삼아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동쪽 산에 머무르는 모습이 환상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자연재해나 전염병이 아닌 이 땅에 밀착

된 희망입니다. 부족한 상황에서 개선된 상황으로의 변화를 희망하는 땅에 밀착된 마음이 인류를 죽게 만듭니다.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좀비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매일 떠오르듯이 땅을 붙잡는 희망은 포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모든 인간이 땅을 희망하기에 모든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가시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주시고자 본문에서 동쪽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숭배를 하던 제사장들의 25라는 숫자를 다시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불상 앞에 절하거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미래를 점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불상 앞에서 절하고 점쟁이에게 미래를 의탁한다는 것은 매우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예배당과 기도원에서 기도할지라도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면 불상 앞에 절하는 것보다 참담하고 무섭고 극악한 죄악입니다. 출구를 만들어 가며 하나님을 완전히 퇴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네 생물에게 바퀴가 있다는 것이 뜻하는 대로 이 세상에 대한 뜻과 계획은 하늘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과 땅이 붙는 지평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늘과 땅이 붙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땅을 빼내서 진공상태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땅에서 희망을 갖는 동안에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계획된 일들의 바퀴가 땅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내가 땅에 대해 희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희망은 쫓겨나고 맙니다. 최상급의 완전함을 뜻하는 24를 부수는 25의 삶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666을 마귀의 숫자로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대로라면 25야 말로 더 무서운 마귀의 숫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3이라는 하늘의 숫자와 4라는 땅의 숫자를 더해 7이라는 완전한 수를 이룹니다. 이것은 곧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평선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한편 3과 4가 곱해지면 12라는 완전한 수가 됩니다. 이 완전한 12에 다시 완전한 12를 더한 24는 최상급의 완전함입니다. 그런데 24에 1이 붙었다는 것은 최상급의 완전함이 무너지고 가장 참담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25는 태양을 숭배하던 제사장의 숫자였습니다. 즉 이 땅에 대해 희망을 가지는 것이 이토록 참담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뚫고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하나님이 빠져나가시는 출구입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신 이유는 선민들의 땅에 대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이 땅에 대한 희망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은근히 바라든 노골적으로 바라든 장기적으로 바라든 단기적으로 바라든 임시적으로 바라든 땅에 대한 모든 희망은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빠져나가시는 모든 출구를 십자가를 통해 봉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땅에 대한 희망이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구를 없애야 하고 십자가를 통해 땅에 대한 희망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땅에 대한 희망을 죽이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희망이 살아나고 성취됩니다. 오늘도 목숨을 다해 십자가를 붙잡고 땅에 대해 갖는 희망 죽이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 어느 곳에 있든지 해야 할 일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이 동쪽으로 빠져나가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빠져나가시는 출구를 만드는 희망가지기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모든 시간을 십자가를 붙들며 이 땅에 대한 희망을 죽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